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장헬렌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6:39-45

다함께

특송 Special song

정재신

말씀선포 Sermon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6월 16일

6월 23일

서경열

최은숙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예대시)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본문 : 눅6:27-38

오늘 설교는 본문에 대한 주해라기 보다는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율법적으로 읽어서 원수를 사랑합시다로 결론이 나면 안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사랑이라는 것은 뜨거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식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며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정확히 어머니의 사랑도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 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조차 완벽하지 않다면 다른 사랑을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연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서 온전한 이타적 연민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심을 설명합니다.

또한 시편 139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아신다는 말은 두려움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분이 나를 아시기에 나를 사랑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분께 온전히 눈을 뜨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들었을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식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유흥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외로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베드로는 답이 올던 그때에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 올리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를 부인하던 자신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고난 당하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 시선을 본 후에 베드로는 비로서 닭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겠습니까? 정죄와 비난의 시선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시선 앞에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 분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한 후에 보여진 변화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율법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나도 모르게 예수와 함께 원수를 용서하는 십자가에 서게 될 것입니다.